



29일~8월4일 장흥 물축제... 탐진강·우드랜드 일원

화끈 물축제, 추억을 쏜다~

살수대첩 퍼레이드·지상 최대 물싸움 등 콘텐츠 강화
대형 물놀이장·수상 자전거·카누 등 체험프로그램 다채

2016년 여름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 줄 '제9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오는 29일 화려한 막을 올린다.

'물과 쉼'의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물축제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7일 동안 탐진강과 우드랜드 일원을 배경으로 열린다.

장흥군은 젊음과 시원함, 유쾌함이 묻어나는 물축제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여름이(郡) 더우면(면) 가리(리) 물축제 1번지 장흥(로)'라는 여름주소를 슬로건으로 내놨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 축제평가 결과 유망축제에서 한 단계 올라선 우수축제로 선정된 만큼 축제 콘텐츠의 수준도 대폭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장흥군은 살수대첩 퍼레이드, 지상 최대 물싸움, 맨손 물고기 잡기, 수중 줄다리기 등 대표 킬러 콘텐츠의 완성도를 높이는 일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좋은 것은 살리고 부족한 것은 보완해 다수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축제로 도약하겠다는 게 장흥군의 목표다.

특히 지난해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

며 정남진 장흥 물축제의 개막 첫날을 장식했던 '살수대첩 물싸움 퍼레이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돌아온다.

살수대첩 퍼레이드는 참여형 축제로의 변화를 선언한 물축제의 메인 이벤트로 군민과 관광객이 한 데 어울려 물싸움을 벌이며 시가지를 행진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첫 선을 보인 살수대첩 퍼레이드는 당초 예상을 훨씬 웃도는 3천여 명의 관광객과 군민이 참가해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올해는 개막 둘째 날인 30일에 개최하고, '살, 수, 대, 접' 4개의 구간별 주제를 나눠 물의 의미를 재해석할 계획이다.

퍼레이드가 시작되는 군민회관 앞 '살' 구간에서는 아이스버킷 행사와 뽀뽀댄스 등으로 구성된 생명의 기운 의식이 벌어진다.

각각 안전과 농협 앞에서 펼쳐지는 '수, 대' 구간에서는 인체에 무해한 켈러 워터와 파우더를 활용해 죄와 더러움을 상징하는 교전이 이뤄진다. 마지막으로 장흥교 아래 '접' 구간에서는 퍼레이드를

거쳐 더럽혀진 몸을 씻는 씻김과 생명 부활 의식을 가진다.

군은 이번 퍼레이드를 통해 생명의 물이 가지는 의미를 재해석해 참가자들과 교감하고, 이들이 만들어내는 활기찬 에너지를 물축제장까지 끌어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올해 축제기간 중에는 매일 오후 2시 군민과 관광객이 한 데 어울려 물총, 물풍선, 바가지를 이용해 펼치는 지상 최대의 물싸움이 열린다.

이번 지상 최대의 물싸움은 무대 앞으로 집중된 물대포를 사방에서 물을 맞을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해 사각지대 없이 참가인원 전원이 쏟아지는 물 속에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매년 어린이와 가족들의 최고 인기 프로그램으로 각광받고 있는 맨손 물고기 잡기도 확대된다. 올해는 연령별로 순차적으로 입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전문 물고기 잡기를 막고, 물고기의 종류와 개체 수도 늘리기로 했다.

탐진강 물속에서는 주민과 관광객이 참여하는 수상 줄다리기도 펼쳐진다. 이 밖에도 수상 달리기, 튜브 바통 이어달리기, 물동이이고 달리기 등 참여 위주의 새로운 수상 프로그램이 시도된다.

초대형 워터 슬라이드, 대형 물놀이장,



장흥물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살수대첩 퍼레이드에서 지난 해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물총싸움을 하고 있다. (장흥군 제공)

출발 드림팀, 우든 보트, 수상 자전거, 카누 등 물놀이 시설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은 올해 축제의 덩이다.

장흥군은 아간에는 EDM(일렉트로닉 댄스 뮤직) 파티와 워터 파티를 열어

외국인과 젊은이의 감각에 맞춘 공간을 만들어 낸다는 구상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물은 성스러운 생명을 담고 있는 동시에, 신나는 놀이와 즐거운 추억의 소재가 되기도 한다"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여름축제, 정남진 장흥 물축제에 오셔서 무더위와 스트레스를 한 번에 날려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드론 '스마트 농업' 새 장 열다

영암군 시연회...비료 살포·종자 파종 활용 가능성 확인

영암군은 "최근 도포면 함반동 들녘에서 민선 6기 후반기 4대 신발전 전략 산업 중 하나인 드론·항공산업 전진기지 구축 사업으로 '드론'을 이용한 벼 병해충 방제 시연회를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시연회에서는 드론 1대로 10분 내에 1만㎡ 면적을 방제했으며, 좁은 공간에서의 활용도가 높아 경비행기와 헬기 방제가 어려운 지역의 방제 활용 가능성을 입증했다.

산업전반에 걸쳐 활용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드론은 농업분야에서는 벼 종자파종, 비료살포, 농약살포, 축산농가를 위한 조사료 파종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등 저비용 고효율의 스마트 농업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영암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드론



을 이용한 스마트 농업기술의 지속적인 보급으로 대규모 직파와 적기방제를 실시하고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여름철 농업인들의 농약중독 방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드론의 현장 적용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영암=문병성기자 moon@

마음 상처까지 껴안는 '영암 경찰'

신북 사회보장협의체와 협업...화재 피해 주민 심리치료 등 지원

영암경찰이 주택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고 실의에 빠진 지역민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업으로 지원에 나서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24일 영암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영암군 신북면에서 방화로 주택이 모두 불에 탄 A씨 부부에게 신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도움을 주고 있다.

영암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은 방화 사건 발생 이후 지역주민들로부터 "피해자 노부부가 보호자는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고 쟁겨출 형편이 안돼 심리상태가 매우 불안해 한다"는 소식을 접한 뒤 유관기관과 함께 심리적, 경제적 지원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영암경찰은 위기가정의 2차 피해가 없도록 신변보호 조치를 하는 한편 심리 전

문상담기관과 연계해 심리치료와 동시에 주택철거를 위한 사건현장 정리지원금 374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신영철, 감임규)는 위기가정 긴급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실생활에 필요한 의식주 지원에 나섰으며, 지역 기관사회 단체들도 구호물품 등을 통해 A씨 부부를 돕는 데 힘을 보탤다.

이건화 영암경찰서장은 "올해로 신설 2년차를 맞은 피해자 전담경찰관은 사건 발생 후 피해를 최소화 대면하는 경찰관이 단순 사건처리를 넘어 효과적인 보호와 지원활동을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신속히 일상생활에 복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문병성기자 moon@

강진 초록민음, 이동 직거래장터 시동

aT 지원사업 유치 4.5톤 차로 장터 운영

강진군이 전국 최초로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초록민음 직거래장터 운영을 지원한 데 이어 이동형 직거래 판매차량(사진)을 확보해 운영에 들어간다.

24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해 aT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시행하는 직거래장터(차량)지원사업에 선정돼 최근 농산물 전용 판매차량(4.5톤)을 구입했다.

운영은 초록민음직거래지원센터 주관으로 판매 및 정산이 이뤄지며, 농수특산물 직거래사업단과 참여 농업인이 생산한 품목을 중심으로 장터를 운영하게 된다.

초록민음 직거래지원센터는 차량관리, 판매정산, 품목선정, 행사기획을 담당하고 직거래사업단 등 생산농어업인은 직거래장터 판매장 운영인력을 지원하는 협업 체계를 추진된다. 비영리로 운영되기 때



문에 판매대금은 카드수수료만 공제하고 전액 해당 농어업인에게 지급된다.

이동형 직거래장터 차량에는 목재판매대와 냉장고 및 일반 마트와 같이 바코드를 이용한 카드결제 계산대를 갖추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2017년 강진 방문의 해를 맞아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강진 농수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데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h@

호텔급, 모텔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바로 앞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지하 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 1층 - 식당 / 세미나실 / 객실, 2~4층 - 객실
- 주위에 매대물건 없음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 가능
- 게스트하우스, 수련원, 연수원 콘도 등등 적합
- 시세 / 감정가 - 15억
- 용 7억3천만원 있음, 법인체 인수 가능
- 매매 - 10억 (일시불 조정가)
-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준비중 (4억 예상) 리모델링 후 연 4억 순수익 가능
- 주인직매 H. 010-3605-5000



토지, 6000평

투자 가치 확신합니다!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30-47번지의 13필지 / 담양댐 하루 바로 옆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 가능
- 시세 - 33억원 / 매매 - 27억 (일시불 조정가)
- 계획관리지역 / 개발호재 많음
- 단기투자 최고지역!
- 전원주택 오토캠핑장 펜션 가든 온천 호텔 등등 모든업종 가능
- 개발 후 70억 이상 가치 있음
- 소유자 H. 010-3627-8282

대단위 APT 밀집지역 근린상가



-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243-6번지 서광병원 맞은편 4거리 코너
- 7층 건물 중 701호 (7층 전체) 130평 (실형 89평)
- 대형주차장, 4면유리, 전망최고
- 감정 / 시세 - 7억
- 매매 - 6억 2천만원
- 용자 - 5억 정도 가능
- 임대 - 보5천만에 월250만 보장
- 주인직매 H. 010-3605-5000